

원불교와 인격교육

김 귀 성

(원광대학교)

〈요약〉

이 연구는 원불교의 인격교육의 이념, 내용과 방법 그리고 평가에 관한 검토를 통해 종교적 인격교육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탐색할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원불교 교서를 중심으로 분석해 본 결과 원불교에서 인격이란 세가지 측면에서 정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마음공부를 통해 얻은 정신의 수양력, 사리의 연구력, 작업의 취사력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런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서 두가지 훈련법을 제기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이다. 그리고 인격교육의 평가는 자기 스스로의 평가와 타인 평가를 병행하고 있다.

원불교 인격교육의 제반 내용을 통해 인격의 세가지 구성요인, 실제 생활속에서 그런 인격을 도야할 수 있다는 점, 정기훈련과 상시훈련법 등의 교육프로그램, 평가의 방법 등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인격교육은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될 수 있으나 원불교의 인격교육 더 나아가서 종교의 인격교육은 인간의 내면적 인격심성 도야라는 점에서 보다 원천적인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향후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다변화하고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접근 가능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과제가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I. 이끄는 말

종교와 교육은 분명 각기 다른 그들 나름의 고유한 영역이 있다. 폴·틸리히(Paul Tillich)의 말처럼 종교는 분명 '궁극적 관심'(Ultimate concern)과 관련이 있다면 교육은 인간형성에 대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분명한 구분에도 불구하고 한편 종교와 교육이 만나는 것은 양자가 모두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과업

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간교육에 귀결된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있다.

적어도 인간형성의 본질적인 노력은 힘이나 돈, 이념, 그 어떤 것 보다도 사상과 문화의 도움 없이는 진정한 사회변혁을 성취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도 종교는 분명 인간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간형성과 관련하여 종교교육이 인간의 의식개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면이 있다면 종교는 우리에게 “초월에 대한 희망, 철학 이상의 비판정신,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한 가르침, 우리에게 사랑, 자비, 선한 마음의 중요성을 일깨워줌으로써 인간성회복에 가장 강력한 힘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황필호, 1994: 62-63).

그러나 근래 인격교육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과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단순히 그 책임을 특정 분야에만 한정시키기 보다는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교육이 공유해야 할 몫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학교교육에서 인격교육 문제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여러 가지 비인간화 현상의 출현에 대한 자성과 그 대안으로써 교육개혁안이 발표된 바 있었다.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 중의 가장 중요한 부분도 역시 인격교육임에는 틀림이 없다. 높은 점수를 맞아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강조하는 만큼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태도나 가치관, 신념, 습관을 기르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정부의 교육개혁안은 인성교육에 대한 무게를 두고 있지만 자세한 각론과 함께 향후 어떻게 실시될 것인가는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족하다. 학교교육에서 비단 지식교육 만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한 인성교육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설사 이런 학교에서의 사회봉사나 인성 교육프로그램이 원천적으로 인간의 심성도야에 그 목적을 두고서 얼마간에 성과를 예측할 수 있다 할지라도 종교에서 그것과는 근본적인 접근에 있어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엄격한 의미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 공동체에 대한 의식의 공유는 학교교육 그것도 중등교육이나 고등교육에서 부터 실시하기 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미 성장해온 것과는 달리 갑자기 사회봉사라는 것이 자칫 형식에 흐를 우려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전전한 종교신앙을 전제로 한 사회봉사나 인성교육의 측면은 현실세

계에서 보다는 진실한 삶의 가치와 인간의 영원을 향한 염원, 종교성향에 바탕한 아름다운 심성의 도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과연 어떤 것이 올바른 의미의 인성교육인지 또는 종교성에 바탕한 인격교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종교의 입장에 따라 달라 일치된 합의수준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인격교육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건전한 종교를 전제조건으로 할 것이다. 요즘 논의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에 알팍한 합리주의 신경질적이고 유치한 반종교주의는 극복되어야 하며 종교에 대한 보다 성숙한 태도가 일반화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가능하며 이것은 근대의 유산인 휴머니즘의 포기를 뜻하기 보다는 오히려 현대인의 인간적 성숙성을 뜻한다(길희성, 1994: 84).

지금으로 부터 81년전 한국에서 출현한 종교로서 원불교에서는 이미 교서에서도 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언명은 물론 교단의 삼대사업을 교화, 교육, 자선에 두고서 학교교육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교육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어 교육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교조인 소태산은 일찌기 인류의 과학 문명 발달에 따른 문제를 예견하고 정신문명의 발달을 주창하였다. 그는 과학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야기되는 병폐로서 물질을 사용해야 할 정신이 오히려 물질의 노예생활로 전락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한 사회가 병들어 가는 증거를 이렇게 들고 있다. “첫째는 돈의 병, 둘째는 원망의 병, 셋째는 의뢰의 병, 네째는 배울 줄 모르는 병, 다섯째는 가르칠 줄 모르는 병, 여섯째는 공익심 없는 병(『대종경』: 교의34) 등이 그것이다. 이런 물질 문명 발달에 따른 인류의 병을 치유하기 위한 처방전으로 그는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형식교육의 제한을 넘어서 보다 넓은 의미의 교육이라는 의미에서 원불교의 인격교육에 대한 교리적 근거와 실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교육의 내용 및 방법 그리고 평가에 이르는 과정을 주로 살펴보고 그것이 한국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 보기로 한다.

II. 원불교 교리의 기본구조

원불교는 소태산 박중빈(1891-1943)에 의해 지금으로부터 81년전인 1915년 그가 진리를 대각함과 함께 전남 영광군 백수면 길용리에서 출발되었다.

교조인 소태산은 유시로 부터 인간의 본질 문제와 우주에 대한 의심을 갖고 때로는 스승에게 또는 기도로 해결에 몰두를 하다 마침내 입정에 들어 그의 나이 26세에 대각을 이루어 이로부터 원불교 교단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소태산은 대각을 이룬 후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두렷한 기틀을 지었도다」(대종경, 서품: 1)라고 말한 바 있다. 여기서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가 서로 바탕하여 한 두렷한 기틀을 지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원불교 신앙과 수행의 표본으로 상징화한 일원상을 시사하는 것이다.

원불교의 개교동기를 보면 원불교의 시대인식과 인류의 구원 및 교단의 종교적 지향점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해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행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생활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써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행복받아 파란고해의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정전: 개교의 동기).

그러므로 원불교에서 이 일원상은 진리의 상징이자 모든 종교신앙과 수행의 표본인 것이다. 먼저 원불교의 신앙은 크게 진리신앙과 당처신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불교 교서인 『대종경』 교의품 16장에 보면 “불공하는 법에는 두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사은 당처에 직접 올리는 실지불공이요, 둘은 형상없는 허공법계를 통하여 법신불계 올리는 진리불공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자는 무형한 허공법계에 불공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죄복을 주는 당처 당처에 직접 불공하는 것이 된다.

소태산은 과거의 불공법과 원불교의 불공법의 차이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천지에게 당한 죄복도 불상에게 빌고 부모에게 당한 죄복도 불상에게 빌고 동포에

게 당한 죄복도 불상에게 빌고 법물에게 당한 죄복도 불상에게만 빌 것이 아니라, 우주 만유는 곧 법신불의 응화신이니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處處佛像)이요, 일일이 불공법(事事佛供)이라, 천지에게 당한 죄복은 천지에게 부모에게 당한 죄복은 부모에게 동포에게 당한 죄복은 동포에게 법물에게 당한 죄복은 법물에게 비는 것이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 될 것이니라(『정전』, 수행편: 불공하는 법).

그러므로 원불교에서 불공하는 대상으로는 네 가지 큰 은혜의 대상과 네 가지 길 이 있는데 전자를 천지, 부모, 동포, 법물의 사은(四恩)이라고 하며 후자는 자력양성, 지자본위, 타자녀교육, 공도자 숭배 등의 사요(四要)라고 한다.

한편 수행에는 세 가지의 길이 있다. 즉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가 그것이다. 이를 한 마디로 일러 삼학(三學)이라고 하며, 또는 일심, 알음알이, 실행공부라고도 한다. 그리하여 신앙문에는 사은사요(四恩 四要)가 있다면 수행문에는 삼학팔조(三學八條)가 있다. 전자가 인생의 요도라고 한다면 후자는 공부의 요도라고 한다. 그러므로 원불교의 교리 핵심은 바로 이 사은 사요와 삼학팔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교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개교 동기에서 말하는 광대무량한 낙원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교화, 교육, 자선의 삼대교단 목표를 정하고 노력한다. 교화는 직접 교도를 대상으로 하는 교화활동이라면 교육과 자선은 간접교화의 방법이 된다.

일반적으로 마음공부니, 심전(心田)계발이니 하는 말들은 곧 삼학을 통한 인격도야를 강조하는 말로, 자성의 정·혜·계를 세우는 길이며 이를 마음공부의 요체로 본다.

그러므로 소태산은 “모든 학술을 공부하되 쓰는 데에 들어가서는 끊임이 있으나, 마음작용하는 공부를 하여 놓으면 일분 일각도 끊임이 없이 활용되나니, 그러므로 마음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나니라”(『대종경』: 요훈1)하였다.

소태산은 이런 마음공부를 ‘심전계발’이라고 하면서 “본래에 분별주착이 없는 우리의 성품에서 선악간 마음 발하는 것이 마치 저 밭에서 여러 가지 농작물과 잡초가 나오는 것 같다 하여 우리의 마음 바탕을 心田이라 하고 묵은 밭을 개척하여 좋은 밭을 만들 듯이 우리의 마음 바탕을 잘 단련하여 행복을 갖추어 얻자는 뜻에서 심전계발이라는 말이 있게 되었나니라”(『대종경』: 수행 59)하였고, “예로 부터 도가에서는 심전을 발견한 것을 견성이라고 하고 심전을 계발하는 것을 양성과 솔성이 라고 하나니 이 심전공부는 모든 부처와 모든 성인이 다 같이 천직으로 삼으신 것

이요, 이 세상을 선도하는 데에도 또한 그 근본이 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회상에서는 심전계발의 전문과목으로, 수양, 연구, 취사의 세가지 강령을 정하고 그를 실습하기 위하여 일상수행의 모든 방법을 지시하였나니 수양은 심전 농사를 짓기 위하여 밭을 깨끗하게 다스리는 과목이요, 연구는 여러가지 농사 짓는 방식을 알리고 농작물과 풀을 구분하는 과목이요, 취사는 아는 그대로 실행하여 폐농을 하지 않고 많은 곡식을 수확하게 하는 과목이니라 ……”(『대종경』: 수행 60). 그러므로 일원상의 수행을 통해 추구하는 바는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자는 것, 바로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인격을 갖추자는 것이다(『정전』: 일원상의 수행).

이상의 원불교 교리구조를 통해 교육과 관련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원의 본체는 우주만유와 제불제성, 범부중생의 본성으로 여기에는 모든 상대적인 차별과 관념을 초월한다. 따라서 범부중생도 부처가 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본다.

둘째, 일원의 진리는 공적인 가운데 영지가 내재해 있어 일체 분별과 선악과 차별을 나뉜다.

셋째, 일원의 진리를 신앙하는 길은 우주만유를 부처로 보아 곳곳이 부처요, 일일이 불공이라 보은 감사생활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주만유와 나와의 관계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즉 네 가지 큰 은혜를 밝혀 사은의 은혜에 보은 감사생활을 하도록 한 점이다.

넷째, 일원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인격을 양성하려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마음을 알며, 양성하며, 사용하는 공부 즉 삼학의 공부길을 밝힌 점이다.

그렇다면 이런 교리적 근거위에서 원불교 교육은 어떻게 전개되는가? 원불교에서 교육에 대한 접근은 직접적으로 교육을 언급한 교리적 근거와 간접적으로 교육을 추론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전자는 소태산이 대각후 제자들에게 행한 최초법어(最初法語)에 수신의 요법을 보면 잘 드러나고 있다.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하여 모든 학문을 준비할 것”이라고 하였고 강자약자진화상의 요법에서는 약자가 강자되는 중요한 원동력의 하나로 교육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발전의 기초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직접적으로 교육을 강조한 것은 “사요” 중에 타자녀교육을 제시한 점이다.

자녀교육의 강령에는 “교육의 기관이 편소하거나 그 정신이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지 못하고 보면 세상의 문명이 지체되므로 교육의 기관을 확장하고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 모든 후진을 두루 교육함으로써 세상의 문명을 촉진시키고 일체 동포가 다 같이 낙원의 생활을 하자는 것이니라”라고 하여 교육을 문명발달과 인류 낙원생활의 요체로 삼고 있다.

한편 교육을 비단 학교교육에 국한하지 않고 보다 폭넓은 의미에서 교리전체를 바라 본다면 소태산이 천명한 일원상의 진리에서 “일원은 제불제성의 심인이며 일체중생의 본성으로” 라고 하여 누구나 진리 본체에서는 하등의 차별이 없으므로 깨달아 닦아나가면 부처와 같은 인격도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상수행의 요법에 의하면 누구나 심지는 원래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룹이 없건마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므로 심지의 계정혜를 세우는 것이 바로 부처가 되는 길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교육의 전제는 인간에 대한 관점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원불교에서는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는가를 교리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첫째, 인간은 정신과 물질, 영육이 아울러야 하는 존재로 정신이 만물을 선용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둘째, 제불제성과 일체중생이 공유하는 본성을 지닌 존재(일원상 진리)로 본다. 일원의 체성은 선악귀천, 미오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처와 중생의 차별은 공적영지 광명을 따라 차별이 생겨나는 평등성과 아울러 인과의 차별성을 지닌 존재로 본다.

셋째, 우주의 변화하는 진리에 따라 인간의 흥망성쇠와 길흉화복, 생로병사의 변화를 겪게 된다. 따라서 인간도 그 변화에 따라 발달단계에 따른 과업을 수행하는 존재이다.

넷째,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 즉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다섯째, 교육을 통해 부처와 같은 인격을 이룰 수 있는 존재이다.

여섯째, 시비이해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일곱째, 고와 락을 수용하는 존재이다.

여덟째, 신(信)·분(忿)·의(疑)·성(誠)과 불신(不信)·탐욕(貪慾)·나(懶)·우(愚)가 존하는 존재이다.

아홉째, 강과 약의 두가지 힘의 우열이 존재한다.
열째, 탐진치(貪瞋痴)를 지닌 존재 등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III. 원불교 인격교육의 전개

1. 인격교육의 개념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인격교육이니 인성교육이니 하는 말들을 곧잘 사용해오고 있다. 아마 그 말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든 우리 사회도 인격의 모순, 도덕적 타락과 관련하여 그 증후군이 피부로 느껴질 만큼 중요하면서도 보편화된 인식인 것 같다.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각계로 부터 제시된 교육개선안도 확인되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격은 지·정·의를 총괄하는 정신적 특징으로서 개체의 노력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고 성격과는 달리 도덕적 평가 대상이 된다(교육학용어사전, 1981: 42). 따라서 인격이란 사람으로서 품격이며 사람됨의 수준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런 인격의 속성으로 일관성, 인격구성 요인 신념체의 통합성, 후천적으로 학습 발달되는 발달성, 자율성, 합리성과 객관성에 기초한 독자성, 가치관과 도덕성을 들기도 한다(이계학, 1991: 28-30). 인격은 개인이 가지는 가치관이며 그 근저를 이루는 도덕성의 수준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격교육이란 인격형성을 목적하는 교육을 의미할 것이다. 인격교육은 자신의 가치관을 성찰하여 그릇된 가치관을 바로 잡고 타율적인 도덕성을 자율적인 도덕성으로 바꾸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합리적으로 객관화하고 애타적이고 이타적이며 바람직하고 건전한 인격과 격조 높은 인격에 초점을 맞춰 인격을 완성토록 추구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기에 그렇다(이계학, 1991: 37-38). 이런 의미에서 인격교육이란 인격형성에 초점을 맞춰 궁극적으로 인격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이름할 수 있다.

T. Lickona에 의하면 인격교육은 유사 이래 두 가지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하나는 지적으로 세련되고 능력있는 국민이 되도록 돕는 일과, 다른 하나는 도덕적으로 훌륭한 국민을 기르는 일이라고 한다(정세구, 1995: 12). 그런데 이런 인격교육이 쇠퇴하기 시작한 것은 다위니즘과 논리실증주의의 등장, 1960년대 이래

개인주의의 팽배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오늘날 인격교육이 요청되는 까닭은 가정의 쇠퇴, 청소년들의 인격면에서 걱정스런 경향들, 객관적으로 중요한 가치들의 회복 필요성이 제기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향후 인격교육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T. Lickona는 인격은 넓은 의미에서 도덕성의 인지, 정의적, 행동적 측면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라면 인격교육은 인지, 정의, 행동적인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될 수 있다고 한다(정세구, 1995: 24-32).

인지적 측면은 문제상황에 도덕적 측면을 아는 것, 도덕적 가치들과 구체적 상황에서 그 가치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지를 아는 것, 균형있는 관점을 취하는 능력, 도덕적 추론의 능력, 사려깊은 의사결정의 능력, 도덕적 자아인식의 능력이라면, 정의적 측면은 양심(옳다고 판단한 것을 행함에 있어 이를 의무로 느끼는 것), 자아존중, 감정이입, 선에 대한 사랑, 자기통제, 그리고 겸허함(자신의 도덕적 잘못을 기꺼이 인정하고 고치는 자세), 행동적 측면은 잘 듣고 의사소통하며 서로 협조적으로 일하는 것과 같은 어떤 기능들로 구성된 능력, 의지로서 이는 우리의 판단과 정신적 육체적 힘을 동원하는 것, 도덕적 습관(문제상황에서 도덕적으로 선한 길을 택해 나가는 어떤 믿을만한 내적 성향 또는 기질을 뜻한다).

그렇다면 원불교에서 말하는 인격이란 무엇이며 근본적으로는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이어서 그런 인격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형성하는가의 방법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원불교에서 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교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정도로 중요시 되고 있다. 예컨대 [正典] 사요에 타자녀교육법을 비롯하여 자녀교육법(심교, 행교, 언교, 업교), 태교, 유교, 청소년 교육, 학교교육, 가정교육, 사회교육, 과학교육과 도학교육의 병진, 학술교육, 정신교육, 예의 교육, 근로교육 등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시간과 공간적 제한을 넘어선 보다 폭 넓은 의미에서 교육을 정의하면서 인격교육에 접근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불교에서는 어떤 인격을 인간됨됨이를 이상적 인격의 준거로 보는가? 이 물음에 대한 접근은 곧 바로 원불교에서 궁극적으로 어떤 인간을 기르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의 의미로 좁혀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원불교 교육의 교리적 근거를 잠시 살펴보고 이에 근거한 인격교육의 지표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원불교 교육의 교리적 근거는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의 구도적인 대각에서 비롯

이 된다. 그는 자신의 우주와 인간사에 대한 의문을 궁극적인 깨달음의 진수로서 일원상으로 상징한 것이다. 일원상은 원불교 신앙의 대상이며 수행의 표본이자 원불교사상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 일원상의 진리에 보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일원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제불제성의 심인이며 일체중생의 본성이며 대소유무에 분별이 없는 자리이며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이며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며 언어명상이 돈공 한 자리로서 공적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에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에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명상이 완전하여 시방삼계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 광겁에 은현자재하는 것이 일원상의 진리니라.

또한

일원상은 부처님의 心體를 나타낸 것이라 하였고, 이어서 일원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四恩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 만물로서 천지 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아님이 없다, 일원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하고 그 진리를 체받아서 자기의 인격을 양성하나니……修養은 定이며 養性이요, 研究는 慧며 見性이요, 取捨는 戒며 率性이라(『대종경』: 교의 3,4,5).

고 밝히고 있다.

이어서 일원상서원문에 보면 “…… 중략 ……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일원상을 체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 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 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 까지 서원함”이라고 하였다.

요컨대 “일원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것은 일원상과 같이 원만한 인격을 양성하자는 것이다(교의12).

소태산은 이런 인격교육의 필요성을 이렇게 말한다.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신 과목만으로는 수신 법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요, 오직 마음 닦는 공부를 주장하는 도가가 아니면 그 진경을 다 발휘하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도학공부는 모든 학술의 주인이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나니라”(교의 28), 하였고 “동정과 일의 유무를 헤아릴 것 없이 삼학을 공부로 계속하는 까닭에 법대로 꾸준히만 계속한다면 반드시 큰 인격을 완성할 것이라”(수행 11)라든가, “삼학을 병진하여 원만한 인격을 양

성하라”(변의 36) 등의 내용에서 원만한 인격, 도학 공부 등은 모두 인격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를 주고 있는 내용들이다.

일원상 진리에 근거하여 인간다움, 사람됨됨이의 실상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현상계의 근원은 일원의 진리이며 모든 인간은 누구나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 즉 불성이 깎아 있다.

둘째, 일원은 사은의 본원이요, 인간의 성품으로 空, 圓, 正(교의7), 또는 유상(체)와 무상(용)으로 무량세계를 전개한다고 한 바 이와 같은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진리에 근거하여 온전한 정신의 자주력(맑은 마음), 사리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지혜의 힘(맑은 마음)과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실행력(실행하는 마음)을 갖춘 인격을 상정할 수 있다. 이것이 원불교에서 말하는 인격의 삼요소 즉 일심(정), 알음알이(지), 실행(의) 공부가 원만하게 이뤄진 전인적 인격을 이룬다. 자심불을 계발한 인격이다.

세째, 일원 즉 사은이요 사은은 삼라만상이니 처처가 불상이요 일일이 불공이라 이런 불공법에 따라 인도상의 요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보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대상에(사은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말함)인 삶의 공동체에 대한 감사보은하는 인격체이다. 여기서 삶의 공동체는 인간은 물론 대자연에 이르기 까지 나의 생존의 근원이 되는 관계성을 깨달아 이에 감사보은하는 인간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개교의 동기에서는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역시 맥을 같이 한다. 일원상을 중심으로 삼학팔조와 사은사요의 양대 신앙 수행문이 인간다운 인간의 삶의 모습이 조명될 수 있는 중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신앙을 통해서는 늘 처처불상 사사불공하는 가운데 보은 감사생활을 하는 인간, 수행을 통해서는 “일심, 알음알이, 실행공부”를 잘하는 인간을 양성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인격체는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진급하는 인간이 되고 은혜는 입을 지언정 해독은 입지 않는 인간,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낙원생활을 하는 인간, 일원의 진리를 깨달아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실천하는 인간이 모두 여기에 패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원불교에서 이상적인 인격의 모습은 바로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에 근거하여 신앙 수행하는 모습속에서 즉 삼학팔조와 사은사요를 실천궁행하는 가운데 형

성되는 것으로 요컨대 일심, 알음알이, 실행공부가 잘 된 전인적 인격, 항상 보은 감사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인격체는 복혜구족하며, 정신과 육신, 일과 이치간에 간단없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원불교에서는 이런 일련의 인격형성 과정을 “마음공부” 또는 “心田啓發”이라고 한다. 마음공부를 통해 참마음, 본성 마음을 찾아 이를 잘 지키고 밝히고 활용하는 공부 이것이 바로 양심을 지키는 공부요 인격교육의 요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불교 『정전』 일원상범어에 보면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삼계가 다 吾家の 소유인줄 알며, 또는 우주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또는 제불 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인줄을 알며, 또는 생로병사의 이치가 춘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또는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정전』: 일원상범어).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깨달음, 알음알이, 안다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가? 안다는 것은 무엇을 안다는 것인가? 소태산은 이렇게 말한다. “연구라 함은 사리(事理)를 연마하고 궁구함을 이름이니라”(정전: 사리연구)하였다. 따라서 사리연구의 목적은 천조의 난측한 이치와 인간의 다단한 일을 미리 연구하였다가 실생활에 다달아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여 알자는 것이다(정전: 사리연구의 목적). 그리고 사리연구의 결과는 천만사리를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걸림없이 아는 지혜의 힘이 생겨 결국 연구력을 얻을 것이다(정전: 사리연구의 결과)라고 하였다. 요컨대 여기서 안다라는 말의 의미는 일반적인 지식을 안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천만사리를 빠르게 분석하고 판단하며 이를 실행에 옮기는 전과정을 함의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둘째로 일심이란 무엇인가? 정신이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름이요, 수양이라 함은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며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함을 이름이니라. 정신수양의 목적은 천지만업으로 벌여가는 이 욕심을 제거하고 온전한 정신을 얻어 자주력을 양성하자는 것이며, 정신수양의 결과는 정신이 철석같이 견고하여 천만경계를 응용할 때에 마음에 자주 의 힘이 생겨 결국 수양력을 얻을 것이다.

셋째로 실행공부에서 작업(作業)이란 무슨 일이나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작용함을, 취사(取捨)란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림을 이른다. 정의어든 기어이 취하고 불의

어든 기어이 버리는 실행공부를 하여 싫어하는 고해는 피하고 바라는 낙원을 맞아 오자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러면 결국 정의는 용맹있게 취하고 불의는 용맹있게 버리는 실행의 힘을 얻어 결국 취사력을 얻게 된다.

2. 인격교육의 과정

원불교 개교동기에 보면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써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이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고해의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라고 하여 개교의 동기를 밝히고 있다. 여기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바로 三學八條와 四恩四要를 뜻한다. 전자가 수행의 과목이라면 후자는 신앙의 과목이다.

이들이 바로 먼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원불교에서 지향하는 인격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목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삼학중 정신수양은 “두렷하고 고요한 마음을 길들이는 공부요, 사리연구는 천지에 크고 작은 현묘한 이치, 인간의 옳고 그른 하고 많은 일, 연마하고 궁구하고 깨쳐나가는 공부라면, 옳은 일 실행하고 그른 일 버리는 공부가 된다(성가: 정신수양가, 사리연구가, 작업취사가).

삼학은 精神修養, 事理研究, 作業取捨로 이를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도록 하기 위해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을 두고 있다 말하자면 이들 훈련법이 바로 원불교가 지향하는 인격을 교육하기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소태산은 인격수련의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면서 그 내적 의미를 밝히고 있다.

내가 그대들에게 일상수행의 요법을 조식으로 외우게 하는 것은 그 글만을 외라는 것이 아니요,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니, 대체로는 날로 한번씩 대조하고 세밀히는 경계를 대할 때 마다 잘 살피라는 것이다.……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하였나니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나는 또한 이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상시용용주의 사항과 교당내왕시 주의 사항을 정하였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기법을 두어 물샐 틈 없이 그 수행방법을 지도하였나니 그대들은 이 법대로 부지런히 공부하여 하루속히 초범입성의 큰일을 성취할지이다(『대종경』: 수행1).

『正典』 정기 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의 관계를 보면 “정기훈련법은 靜할 때 삼학공부로서 수양연구를 주체삼아 상시공부의 기초를 준비하는 공부법이며 상시훈련은 동할 때 삼학공부로서 작업취사를 주체삼아 정기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공부법이다”고 하였다. 이 두 가지 훈련법을 통해 동정간 삼학을 병진하도록 한 표어가 바로 無時禪 無處禪이다. 이는 인격교육을 일상생활을 통해 간단없이 실행하여 삶과 마음공부 인격교육이 일원화되도록 하고 있다.

먼저 정기로 법의 훈련을 받기 위한 정기훈련법의 내용으로는 11과목이 있다. 이 가운데 정신수양과목으로는 염불, 좌선등이 있고 사리연구 과목으로는 경전연마,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기일기, 과목이 있으며, 작업취사 과목으로는 주의, 조행, 상시일기 과목을 두고 있다. 이는 삼학을 일정한 기간을 두고 훈련하는 훈련과목으로 이를 통해 삼학을 병진하는 원만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루 일과를 중심으로 본다면 아침은 정신수양시간으로, 낮은 보은봉공, 작업취사를 저녁은 참회반성하는 시간으로 정하여 훈련하도록 하고 있다.

소태산은 이런 훈련공부와 관련하여 실제 사물에 밝아지게 하려면 먼저 “일 당하기 전에는 미리 연마하고, 일을 당하여서는 잘 취사하고 일을 지낸 뒤에는 다시 대조하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며 비록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마음 가운데에 매양 반조하는 공부를 잘하면 점점 사물에 능숙하여져서 모든 응응에 걸리고 막히지 아니하리라(『대종경』: 24)라고 하여 미리 연마하고 잘 취사하고 평가하는 순서를 밝히고 있다.

원불교 훈련법에서 정기훈련법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삼학을 훈련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11개 과목이 있으며 상시훈련법은 일상생활속에서 훈련하는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의 관계는 “정기훈련법이 정할 때의 공부로서 수양, 연구를 주체삼아 상시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공부법이며, 상시훈련법은 동할 때 공부로서 작업취사를 주체삼아 정기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공부법이 되나니 이 두 훈련법은 서로서로 도움이 되고 바탕이 되어 재가출가 공부인에게 일분일각도 공부를 떠나지 않게 하는 길이 되나니라”(『정전』: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의 관계).

한편 常時훈련법에는 다시 常時應用注意事項 6조와 教堂來往時注意事項 6조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상시응용주의 사항 6조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2.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3.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4.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석반후 사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건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위에서 1조는 일상생활속에서 삼학을 실천하도록 한 것이라면 2, 3, 4조는 일에 대한 연마를 통해 사무에, 경전법규 연습, 의두연마를 통해 사리연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5조는 염불과 좌선을 통한 정신수양을 그리고 6조는 실행공부를 대조하도록 함으로써 삼학을 병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서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6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시응용주의 사항으로 공부하는 중에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일 문답하는데 주의할 것이요.
2.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3.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오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4. 매년 선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매 예회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 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 유무를 반조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한편 상시훈련법에 상시응용주의 사항 6조는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 귀천을 막론하고 인간생활을 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빠른 법이며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은 상시응용주의사항을 도와주고 알려주는 법이 된다. 그리고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은 교당내왕을 통해 할 수 있는 공부로 문답 해오와 감각에 대한 지도감정, 정기훈련 준비, 법회를 통한 공부, 그리고 교당내왕을 통한 반조를 실생활에 활용을 그 내용으

로 하고 있다.

소태산은 동정간에 간단없이 삼학을 공부하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공부인이 動하고 靜하는 두 사이에 수양력 얻는 빠른 방법은 첫째는 모든 일을 작용할 때에 나의 정신을 시끄럽게 하고 정신을 빼앗아 갈 일을 짓지 말며 또는 그와 같은 경계 경계를 멀리 할 것이요, 둘째는 모든 사물을 접응할 때에 애착 탐착을 두지 말며 항상 담담한 맛을 길들 것이요, 세째는 이 일을 할 때에 저 일에 끌리지 말고 그 일에 일심만 얻도록 할 것이요, 네째는 여가 있는 대로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또는 정하고 동하는 두 사이에 연구력 얻는 빠른 방법은, 첫째는 인간만사를 작용할 때에 그일 그 일에 알음알이를 얻도록 힘쓸 것이요, 둘째는 스승이나 동지로 더불어 의견교환하기를 힘 쓸 것이요, 세째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중에 의심나는 것이 생기면 연구하는 순서를 따라 그 의심을 해결하도록 힘쓸 것이요, 네째는 우리의 경전 연습하기를 힘쓸 것이요, 다섯째는 우리의 경전연습하기를 다 마친 뒤에는 과거 모든 도학가의 경전을 참고하여 지견을 넓힐 것이니라,

또는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취사력 얻는 빠른 방법은 첫째는, 정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서 실행할 것이요, 둘째는 불의인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서 하지 않을 것이요, 세째는 모든 일을 작용할 때에 즉시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낙망하지 말고 정성을 계속하여 끊임없이 공을 쌓을 것이니라(『대종경』: 수행2).

이상의 동정간 삼학공부도 사실은 훈련법에 포함된 것이기에 그 범주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상과 같이 삼학을 통한 공부가 자심불을 계발하여 자력을 얻는 공부라면 사을 통한 신앙은 타력을 얻는 공부이다. 사에 대한 보은 감사로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는 공부로는 진리불공과 실지불공이라는 두 가지 불공법이 있다. 불공법에 대해 정전에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우주 만유는 법신불의 응화신이니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이요, 일일이 불공법이라 천지에 당한 죄복은 천지에 부모에 당한 죄복은 부모에게 동포에게 당한 죄복은 동포에게 법률에게 당한 죄복은 법률에게 비는 것이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이라”하였고 이와 같이 사은 당처에 비는 것이 실지불공이라면 형상없는 허공법계를 통하여 법신불께 비는 것을 진리불공이라고 하였다.

진리불공의 방법으로는 심고와 기도를 들 수 있다. 형상없는 허공법계를 통하여 심신을 제계하고 각기 소원을 세운 후 일체사념을 제거하고 선정이나 念佛, 頌經,

주문을 외우면서 일심으로 정성을 올리면 결국 소원을 이루는 동시에 큰 위력이 나타나 악도중생을 제도하고 백천사마라도 귀순시킬 능력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하기로 하면 일백골절이 힘이 쓰이고 일천정성이 사무쳐서 이뤄진다고 하였다(『대종경』 교의품 16). 물론 신앙행위도 진리불공과 실지불공을 통해 자타력이 병행되도록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원불교에서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인격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정기와 일상생활을 통한 동정간에 간단없이 삼학을 통해 자심불을 찾아 밝히고 밝히고 실행하는 공부와 아울러 법신불사은을 통해 진리불공과 실지불공을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이 부처와 같은 인격을 닦고 아울러 나를 둘러싼 삶의 공동체에 대한 보은 감사 즉 없어서는 살수 없는 은혜의 대상에 대한 감사보은할 줄 아는 인간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결국은 무루의 복과 혜를 장만하자는 것이요, 모든 인류가 다 함께 광대무량한 낙원생활을 하자는 것이다.

3. 인격교육의 평가

인격교육의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자신이 스스로 하는 자기평가 방법과 타인이 함께 하는 방법으로 대별된다. 전자에는 일기법과 신분조사법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대종경』 수행품 1장에서 소태산은 이렇게 말한다.

“일상수행의 요법을 조석으로 외우게 하는 것은 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요 그 뜻을 세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니 대체로는 날로 한번씩 대조하고 세밀히는 경계를 대할 때 마다 잘 살피라는 것이라……그리고 이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해 상시응용주의사항과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을 정하였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기법을 두어 물샐틈 없이 그 수행방법을 지도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인격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기법과 신분조사법이 있다. 전자인 일기법에는 상사일기법과 정기일기법이 있다. 전자는 공부인으로 하여금 당일의 유무념 처리와 학습상황과 계문 犯過 유무를 반성하도록 한 것이라면, 정기일기는 심신작용처리전과 감각감상을 기재시키기 위한 것이다. 결국 이는 자신의 매일 매일 공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반성하며 평가하도록 한 것이다.

『정전』 일기법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다.

제가 출가 유무식을 막론하고 당일의 유무념 처리와 학습 상황과 계문에 범과 유무를 반성하기 위하여 상시일기법을 제정하였으며 학원이나 선원에서 훈련을 받는 공부인에게 당일내 작업한 시간수와 당일의 수입지출과 심신작용처리전과 감각감상을 기재시키기 위하여 정기일기법을 제정하였나니라(『정전』 일기법).

상시일기를 통하여 자신의 인격을 평가하는 내용으로는 유무념, 수양과 연구의 학습상황, 계문의 범과 유무, 예회와 입선 참석여부를 반조하는 것이다. 여기서 유무념이란 무엇인가? 유념이란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유념이고, 취사하는 주의심 없이 한 것은 무념이 된다.

한편 정기일기는 당일의 작업시간수, 수입지출, 심신작용 처리전, 감각감상 등을 기재함으로써 주로 심신작용한 결과를 반조하는 것이다. 작업시간수를 기재하는 것은 하루 24시간을 가치있게 보낸 시간과 허망하게 보낸 시간을 대조하여 허송한 시간이 있으면 뒷날에는 그렇지 않도록 주의하여 잠시라도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말도록 함이요, 수입지출의 기재는 빈곤방지를 통해 안락을 억제하고 유족한 사람이라도 놀고 먹는 폐풍을 없애기 위함이요, 심신작용처리전 기재는 당일의 시비를 감정하여 죄와 복의 결산을 알게 하고 시비 이해를 밝혀 모든 일 작용할 때 취사의 능력을 얻게 함이요, 감각감상은 대소유무의 이치가 밝아지는 정도를 대조하자는 것이다.

한편 인격형성의 일정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정기훈련을 마친 후 본인의 정기훈련 결과 지난 일년동안의 수행의 정도를 종합평가하는 신분검사법이 있다. 이렇게 일기법을 실천하여 3년 동안의 누적된 자신의 수행결과와 함께 타인의 평가를 병행 종합평가 하는 것이 이른바 범위사정이다.

그러나 인격평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자신의 평가로써 이것이 모든 평가의 기초가 된다. 이런 평가를 통해 나온 결과로서 범위는 인격의 정도를 공부의 정도를 측정한 법계로 普通級, 特信級, 法魔相戰級, 法降降魔位, 出家位, 大覺如來位 등 삼급, 삼위의 6단계가 있다.

보통급은 유무식 남녀 노소 선악 귀천을 막론하고 처음으로 불문에 귀의하여 보통급십계를 받은 급이며, 특신급은 특신급십계를 받아 지키며 교리와 법규의 대강을 이해하며 모든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사람의 급이요, 법마상전급은 법마상전급십계를 받아지키며 법과 마를 일일이 분석하고 우리 경전해석에 과히 착오가 없으며 천만경계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는데 재미를 붙이고

무관사에 동하지 않으며 법마상전의 뜻을 알아 법마상전을 하되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에 대기사는 아니하고 세밀한 일이라도 반수이상 법의 승을 얻는 사람의 급이요, 법강항마위는 육근을 응용하여 법마상전하되 법이 백전백승하며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대소유무의 이치에 걸림이 없으며 생로병사에 해탈을 얻은 사람이 위이요, 출가위는 대소유무의 이치를 따라 인간의 시비이해를 건설하며 현재의 모든 종교의 교리를 정통하며 원근친소와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일체생령을 위하여 천신만고와 합지사지를 당하여도 여한이 없는 사람의 위이요, 대각여래위는 대자대비로 일체생령을 제도하되 만능이 검비하되 대의에 어긋남이 없고 교화받는 사람으로서 그 방편을 알지 못하게 하며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절도에 맞는 사람이 위다.

이상과 같이 원불교의 인격교육의 평가는 세밀히는 경계를 당할 때 마다에서 부터, 매일매일 그리고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을 통해서는 일주일 또는 한 달에 한번씩 그리고 정기훈련을 통해 1년에 한번씩, 이어서 3년에 한번씩 법위사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하겠다. 이런 평가는 물론 자기 스스로의 평가를 기초로 타인의 평가를 병행하는 자타 평가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원불교의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인격체는 인간의 본래적인 진리의 모습으로 환원될 때 일상적 자아가 아닌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게 된다. 이런 인간상은 자신은 물론 인류 뿐만 아니라 생명공동체에 대한 구원의 두 가지 측면에서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IV. 원불교 교육사상의 현대교육적 함의

종교교육은 종교가 문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종교가 우리 개개인의 삶의 자세의 정립에 이바지하는 인생철학적인 면, 각자의 삶의 참 뜻의 음미 등을 말한다. 그러기에 교사자신이 교육의 마당위에서 종교적 기질을 성실하게 발로할 때 그것은 학생의 인격형성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김정환, 1982: 90-91).

물론 직접적인 종교교육은 단순히 종교에 대해 학습하는 것이 아니다. 배경적인 지식은 필수적이지만 주요점은 그 종교를 사고와 감정의 방식으로 철저히 파악하

는 것이다(정현숙, 1993: 96). 요컨대 종교교육은 인간성의 엄연한 일면인 종교성을 길러서 인격도야의 완성을 기하려 한다는 점에서 교육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본질적인 영역이라고 하겠다(박선영, 1980: 43).

그렇다면 인격교육의 측면에서 원불교 교육사상이 갖는 현대 교육학적 의의는 무엇인가? 여기서는 위의 논의와 기본 교리에 입각하여 다음 몇 가지로 요약 정리해 보기로 한다.

첫째, 인간은 부처와 같은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무한한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본다. 누구나 참마음을 회복할 수 있고 참마음을 회복한 사람이 바로 인격자라고 보는 것이다.

둘째, 교육은 인간의 삶과 직결되는 바 평생 나아가 영생토록 이뤄져야 하는 과업임과 동시에 교육의 장에 있어서도 학교, 가정, 사회할 것 없이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이뤄질 수 있으며 이를 추구하는 점이다.

셋째, 교육에 있어 정신의 수양력, 사리연구력, 작업취사력(智情意) 등이 조화롭게 발달된 전인적 인격도야를 전제로 한다.

넷째, 건전한 인격은 靈肉이 조화롭게 발달된 인격체를 이룬다.

『정산종사 법어』에 보면 “일생을 통한 교육은 먼저 학술교육이니 이는 과학교육을 통하여 지식과 기술을 배우게 하는 것이요 둘째는 정신교육이니 이는 주로 도덕의 훈련을 통해 마음단련과 도의의 실행을 얻게 하는 것이요, 세째는 예의 교육이니 이는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통하여 가가각각 그에 당한 모든 의례를 익히고 행하게 하는 것이요, 네째는 근로교육이니 이는 평소 부터 부지런한 정신을 기르며 생산적인 작업을 실습하는 것이니라”(『정산종사법』: 통교의 도).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마음공부에 힘써야 훌륭한 인격을 이루나니 이 마음공부를 여의고 어찌 행복의 결실을 바라리요”(『정산종사법어』: 무본 9) 하였고 이어서 “옛말에 身言書判이라 하여 풍채와 언변과 문장과 판단으로 사람의 인격을 논한다 하였으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이며 그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직 그 사람의 마음이니라(『정산종사법어』: 근실 11)”하였다. 또한 도가에서는 진리를 알아가는 진취성이 있는가? 그 행동이 정의의 길을 밟고 있는가 못하는 가로 인격을 판단하나니라(『정산종사법어』: 근실 12).

그리고 “밖을 나타난 인물 학벌 등은 겉 인격이요, 안으로 양심을 갖춘 것은 속 인격이라, 이를 나무에 비유 하자면 겉은 지엽이요 속인격은 뿌리니 그 뿌리를 잘

가꾸어야 지엽도 무성하고 결실도 충실하나니라(『정산종사법어』: 근실 14)하였다.

이상에서 보면 인격에 뿌리는 마음공부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교육이 병행되어야 원만한 인격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육쌍전법에서도 “과거에는 세간 생활을 하고 보면 수도인이 아니라 하므로 수도인 가운데 직업없이 놀고 먹는 폐풍이 치성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해독이 많이 미쳐 왔으나 이제 부터는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건설하게 되므로 새 세상의 종교는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 종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제불조사 전정전의 심인인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와 수양, 연구, 취사의 삼학으로써 의식주를 얻고 의식주와 삼학으로서 그 진리를 얻어서 영육을 쌍전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이 되게 하자는 것이니라”하였다.

끝으로 실천성을 강조하는 점이다. 인격교육에서도 한갓 구호에 그치는 것을 이렇게 경계하고 있다. 『정전』 작업취사에 보면 “정신을 수양하여 수양력을 얻었고 사리를 연구하여 연구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실제 일을 작용하는데 있어 실행을 하지 못하면 수양과 연구가 수포로 돌아갈 뿐이요, 실효과를 얻기 어렵나니—하였다” 교리 전반에 흐르고 있는 것은 역시 시간과 공간에 구애됨이 없이 마음공부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때문이다.

V. 맺는 말

이상에서 원불교의 인격교육과 관련하여 인격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평가의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원불교에서 인격의 본질은 삼학에 의한 수행의 결과로서 얻어진 삼대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원상의 수행은 일원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하고 그 진리를 체받아서 자기의 인격을 양성하나니……”(『대종경』: 교의 5)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삼대력은 시간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쌓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동정간 삼학공부법이요, 무치선 무처선의 공부법이다.

원불교에서 인간다움을 이룰 수 있는 인격형성의 교육은 한마디로 마음공부라고 할 수 있다. 대종경 교의품 29장에 보면 “그대들은 여기서 무엇을 배우느냐고 묻는

이가 있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작용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할 것이며 …… 몰아 말하자면 모든 재주와 물질과 모든 환경을 오직 바른 도로 이용하도록 가르친다 함이라”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 마음공부는 먼저 자신에게 내재해 있는 自心佛을 찾아 밝히고 밝히고 잘 활용하는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자성에 일심과 알음알이, 실행공부를 통한 통합된 인격 형성을 말한다. 반드시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를 교육학적인 의미로 규정한다면 지정의를 조화롭게 발현하는 것이다.

둘째, 원불교의 인격교육의 내용은 과학과 마음공부, 육신과 정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통한 심신의 건강 영육쌍전을 강조하고 있다.

세째, 자심불의 발현과 함께 자연을 포함한 삶의 공동체에 대한 경외와 보은 감사하는 인격을 엿볼 수 있다. 소태산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를 은혜라고 하여 우리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네가지 큰 은혜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은 감사를 가르치고 있다.

네째, 원불교의 인격교육 과정에는 시간, 공간에 구애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동정간 무시 무처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제기되고 있다. 靜時 방법으로는 정기훈련법이 있고 動時 방법으로는 상시훈련법이 있다. 이들 모두 삼학을 닦아나가는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섯째, 인격교육의 평가는 자신 스스로 평가 방법으로 일기법과 신분검사 등의 것과 자타가 함께 하는 방법으로 범위사정을 통해 끊임없이 반환작용(Feed back)을 함으로써 인격교육의 발달을 촉진하고 있다.

요컨대 원불교에서 인격교육은 원래 저마다 값아 있는 부처의 성품, 즉 불성, 맑고 밝고 실행에 옮기는 참마음을 조화롭게 전인적으로 계발함과 동시에 자연을 포함한 삶의 공동체(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 대한 보은 감사 즉 타심불을 찾는 인격, 이것이 자기평화와 공동체의 평화를 도모할 줄 아는 인격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훈련법을 계발함과 동시에 이 평가를 통해 성취를 추구하고 있다 하겠다.

<참고문헌>

- 고용수(1992). 기독교교육. 이론과 동향. **새교육**, 92-12. 서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교육발전위원회(1991). 원불교 교육관계 자료집. 원불교 교육발전위원회.
- 길희성(1994). 포스트모던 사회와 종교. 서울: 민음사.
- 김귀성(1994). 종교와 인간성회복. 신용교학회 제27차 학술발표회 발표요지(94.12.12).
- (1992). 정산종사의 사회교육관. **원불교사상**, 15집. 이리: 원광대부설 원불교사상연구원.
- (1994). 소태산의 평화교육사상. **원불교사상**, 17.18집. 이리: 원광대부설 원불교사상연구원.
- (1990). 원불교의 교육평등관. **원불교사상**, 13집. 이리: 원광대부설 원불교사상연구원.
- (1983). 원불교 교육관. **정신개벽**, 2집. 신용교학회.
- 김기곤(1986). 소태산의 생애와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전주교육대학 논문집, 22. 전주: 전주교육대학.
- 김성재(1992). 종교와 교육 관계고찰. **새교육**, 92-12. 서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김순임(1980). 소태산의 인간관. **원불교사상**, 4집. 이리: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 김순임(1981). 소태산의 인간관Ⅱ. **원불교사상**, 5집. 이리: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 김정환(1982). 전인교육론. 서울: 세영사.
- 김준기(1996). 교육과 사회. 이리: 원광대학교 출판국.
- 남궁규(1983). 소태산 사상의 인간교육학적 고찰. 석사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Alan Harris. 정현숙 역(1993). 도덕교육과 종교교육. 서울: 집문당.
- 박선영(1980). 종교교육의 가치와 사회적 평가. **사학(1980년 여름호)**. 서울: 대한사학연합회.
- 小原國芳. 諸葛森 역(1995). 전인교육론. 부산: 부산대출판부.
- (1987). 종교교육론. 동경: 玉川大學出版部.
- 승실대 부설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편(1995).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 서울:

숭실대학교

- 이은선(1992). 종교교육 의미와 필요성. **새교육**, 92-12. 서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성업봉찬사업회(1989). 원불교칠십년정신사. 이리: 원불교출판사.
- 원불교 교화부(1983). 원불교 전서. 이리: 원불교출판사.
- 이계학(1991). 인격교육론. 서울: 성원사.
- 이건인(1993). 원불교 교육사상. 원불교 사상시론. 이리: 원불교 수위단회사무처.
- (1994). 원불교의 인간교육론. **원불교 사상**, 17.18집. 이리: 원광대학교 원불교 사상연구원.
- 이은선(1992). 종교교육의 의미. **새교육**, 1992, 12월호. 서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전명기(1991). 소태산 박중빈대종사의 교육사상과 그 전개. 원불교교화연구회. 한국 근대사에서 본 원불교. 서울: 원화.
- 정세구(1995). 인격교육과 도덕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정명성(1984). 소태산의 교육사상.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용길(1992). 종단학교에서의 바람직한 종교교육. **새교육**, 1992, 12월호. 서울: 한국 교원단체총연합회.
- 주춘엽(1988). 원불교의 교육평등사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한양선(1983). 원불교 태중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 황필호(1994). 인간성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 원광대대학원 특강자료. 1994, 11월.
- 황춘덕(1986). 소태산 박중빈의 교육사상.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